

E-E1-01

인삼의 재해 적응성 검정지표 설정 및 중간모본 육성

현동윤, 방경환, 김영창, 이성우, 김충국, 차선우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삼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 재배되면서 환경적응성이 강한 광지역성 품종 육성이 필요하나 현재 육성 보급된 품종은 고광, 고온 및 염해에 대한 환경적응성이 낮아 생육불량의 원인이 되고 있어 재해 적응성 검정기준 및 검정지표 설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광 온도 및 염해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광에 대한 검정기준은 자연광의 40%(250~300 $\mu\text{mol s}^{-1}\text{m}^{-2}$)가 알맞으며, HLTG 3060과 HLTG 3108 2계통은 자연광의 40% 처리 30일 이후에도 엽록소 활성(Rfd)이 높았다. 고온에 대한 검정기준은 46 $^{\circ}\text{C}$ 에서 1시간 처리가 알맞았으며, HTG 3060, HTG 3062 및 HTG 3148 의 3계통은 46 $^{\circ}\text{C}$ 1시간 처리 후에도 엽록소 활성(Rfd)이 높았다. 염해에 대한 검정기준은 5ds/m가 알맞았으며, STG 3030, STG 3052, STG 3060, STG 3062 및 STG 3181 6계통은 염 농도 5ds/m 처리 15일 후에도 엽록소 활성(Rfd)이 높았다.

* 주저자 : Tel 043-871-5544, mail : hyundy@rda.go.kr

E-E1-02

지황 비가림 재배 시 생육 및 수량

김충국, 박춘근, 김영국, 이성우, 현동윤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지황은 국내 자급율이 38%로 수입의존율이 매우 높은 작물이며 여름철에 생지황의 가격이 고가 이지만 노지재배로는 장마철 과습과병해 발생 등으로 생육이 극히 불량하여 수량과 품질을 저하시켜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재배기술을 확립하고자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시 지황의 출현은 노지재배에 비하여 4월 중순의 평균온도가 13.4 $^{\circ}\text{C}$ 가 높고, 지황의 출현에 적당한 온도가 되어 출현기가 3일이 빨랐으며, 입모율은 노지재배 (62.2%)에 비하여 78.3%로 현저하게 높았다. 주당엽수는 노지재배 23.2매에 비하여 41.6매로 1.8배 증가되었으며, 주당 경엽중에서도 노지재배 52g에 비하여 118g으로 2.3배가 증가되어 지상부 생육이 현저하게 왕성하였고, SPAD 측정치도 노지재배 45.1에 비하여 63.7로 8.6이 높았다. 생지황의 m^2 당 수량은 노지재배 994g에 비하여 1,841g으로 1.9배 증가되어 비가림 하우스 재배로 소득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주저자 : Tel 043-871-5541, mail : kimcg@rda.go.kr